

나주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개소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박차

강인규 시장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 만드는 것이 핵심”



나주 지역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 지원을 책임지는 ‘나주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나주시는 15일 공익활동지원센터 4층에 마련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갖

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센터 설립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나주형 사회적경제 실현’을 목표로 추진돼왔다.

추진돼왔다.

시는 2018년 7월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10월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공동체지원사업과 통합 운영을 결정, 지난 2년간 센터 설립 기반 구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센터는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경제 성장 동력 마련’을 목표로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4개 분야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노노 양성, 분과 협업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이 만들어 가는 담양식 주민자치의 시작

담양군 주민자치대학 심화과정 개강



담양군은 지난 12일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공직자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대학 심화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담양군 주민자치대학 심화과정은 주민 자치역량 강화, 마을리더 발굴, 자치행정을 펼치는 지방공무원 육성 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주민·공직자 등 56명 참석

오는 9월까지 운영될 예정

“미래 이끄는 원동력 될 것”

이해 ▲마을 속의 삶을 연찬하다 ▲갈등의 이해와 민주적 토론기법 등을 주제로 9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 날 실시한 강의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편의 이념 속에 주민자치, 주민자치의 역사, 마을공화국 의미, 국가 균형발전과 마을기금 등의 내용으로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강연이 이뤄졌다.

특히, “주민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이런 흐름 속의 핵심은 주민이고 미래의 희망은 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을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라며 앞으로 주민이 담양군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담양군 관계자는 “주민자치대학이 주민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어려운 시기에 활로를 모색하는 자치 일꾼을 양성하고, 전 군민과 주민자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담양식 주민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시는 기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통합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상생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김선용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사회적경제 기업별 협의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강인규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연대와 협력,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나주를 만드는 것이 센터가 추구해야 할 핵심적 가치”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 지역은 천연염색, 먹거리, 농업, 관광,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활기업 등 총 83개소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이다.

센터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문의는 방문(나주시 배매3길 19-3 2층) 또는 유선(061-337-9907)으로 하면 된다.

곡성군, 농어촌민박 1곳당

최대 100만원소방시설 지원

곡성군이 농어촌민박 1개소 당 최대 100만원씩 소방안전시설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기준에 따라 곡성군은 연초 민박업소 37개소에 의무설치시설 비용으로 총 850만원(자부담 30%)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번에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시설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

신청기간은 6월 26일까지로 사업장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곡성군 소재 모든 농어촌민박이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 유도 표지 등 소방안전시설과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비용이 해당된다.

곡성=김광휘 기자



‘아침밥’ 똑똑하고 건강해지는 첫 걸음

장성군, 7개 학교 1600명 대상 ‘아침밥 먹기 캠페인’

장성군이 성장기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친다.

장성군은 ‘똑똑하고 건강해지는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오는 29일까지 관내 7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군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찰밥과 조각과일 등을 제공하고,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과 균형 잡힌 식생활이 건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린다. 또한 금연·절주·구강 보건 등 건강생활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를 독려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알린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은 두뇌발달을 높이고 비만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청소년들의 바른 식습관 형성과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화순군, 적극적인 계약심사

일상감사로 11억여 원 절감

민간자본 보조사업 일상감사 기준...현장 심사 강화 ‘성과’

화순군이 적극적인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제도를 운용해 올해 상반기에 예산 11억25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감액이 15% 증가했다.

군은 2020년을 ‘청렴 정착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렴 사책의 하나로 일상감사 기준을 강화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예초 3억 원 이상 공사가 일상감사 대상이었지만, 1억 원 이상 공사로 그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6월 12일 현재)에 총 159건(계약심사 110건·일상감사 49건) 324억 원의 사업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비, 물량 과다 산정과 오류, 불필요한 공정과 공법 등을 금액·조정·변경해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현장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공법으로 변경하는 등 현장 심사를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원가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노력이 예산 절감 성과로 나타난 것 같다”며 “예산이 헛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과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 일 남

범 상 다

한 속 른

여 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